

리퍼트 美대사 문서·팀 셔록 기자 ‘체로키 파일’ 전달 ... CIA 기밀문서 대거 공개

발포 명령자·헬기사격 등 5·18 ‘진실의 門’ 열릴까

재단, 5·18 관련 내용 분석

주한 미국대사관이 보관해온 5·18 관련 문서 89건이 지난 17일 5·18 기념재단에 건넨 데 이어 18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홈페이지를 통해 기밀 해제된 5·18 관련 문건을 포함한 방대한 정보문건을 공개했다. 1979~1980년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을 가리키는 ‘체로키 파일’ 등 다량의 문서도 미국인 탐사보도 기자 팀 셔록에 의해 최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기증됐다.

80년 5월 광주를 비롯한 국내 상황을 담은 문건을 신군부 세력에게 받고 자체적으로도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 미 정부 측의 문서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5·18 집단지갑포, 계엄군 헬기사격 등 80년 5월을 둘러싼 진실 규명으로 다가가는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미 CIA는 한국시각으로 19일 오전 1200만 페이지의 기밀해제 문서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CIA는 문서가 93만 건에 달하며 CIA 초기역사와 냉전, 베트남 전쟁, 6·25 한국전쟁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문서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CIA가 수집한 정보와 외국자극 반역본, 사진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있다. 5·18 기념재단은 CIA가 공개한 문서에서 5·18 관련 내용을 찾고 있다.

재단은 문서목록에서 ‘kwangju(광주)’, ‘kwangju uprising(광주 봉기)’ 등 2가지 조합의 검색만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자료가 나와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전남 광주를 방문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기밀 해제된 5·18 관련 문서 89건도 전달받아 분석 중이다.

문서는 1980년 5월 당시 미 대사관 측이 수집한 정보와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신군부 세력이 미국 정부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5·18 관련 희생자 수에 관한 정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재판 동향, 당시 국내 사회 상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작성된 문서는 미 대사

관이 본국에 보고하거나 자체 보관해왔다.

5·18 기록관도 이른바 체로키 파일 등 미 정부 문서 3500페이지를 최근 미 언론인 팀 셔록에게서 기증받아 분석 중이다. 이 기록물에는 비밀 해제된 자료 뿐 아니라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해 팀 셔록이 끈질기게 취재해 얻어낸 자료가 포함돼 있다.

5·18 단체는 리퍼트 대사가 제공한 문서, CIA가 기밀해제한 문서, 체로키 파일 등 5·18 관련 미 정부 문서가 잇따라 공개

되거나 광주로 오면서 80년 5월을 둘러싼 진실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면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개되거나 입수된 미 정부 기록물을 바탕으로 5·18의 진실을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5·18 집단지갑포 명령자, 계엄군 헬기 사격 명령자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문화가족 ♥ 설맞이 인사

19일 광주시 서구 양3동 서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설맞이 행사에서 이주 여성과 자녀들이 하트로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광주비엔날레 문화전당서 열린다

광주, 아시아 문화예술 거점 도약 시너지 효과 기대

재단·문화전당 업무협약

창설 22년 만에 첫 시도

제12회 ‘2018 광주비엔날레’(2018년 9월7일~11월11일)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북구 용봉동 전시관을 벗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 최고 인프라를 갖춘 문화전당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박양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19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내용은 ‘2018광주비엔날레의 문화전당 내 개최’, ‘아시아 시각예술 분야 국제 교류·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공동 홍보’ 등이다.

협약에서는 ‘2018 광주비엔날레’를 문화전당에서 열자는 데 합의한 부분이 주목된다. 비엔날레가 그동안 일부

전시를 도심에서 분산 개최한 것과 달리 전시를 통째로 옮겨 문화전당에서 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비엔날레 이전 개최 배경에는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노후문제가 작용했다. 1995년 7개월 만에 급조된 전시관(전체 약 8300㎡ 규모)은 곳곳에서 노후화 현상과 고질적인 누수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재단은 대체 공간을 모색하던 중 비슷한 규모인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재단 관계자는 “현 전시관에서 행사를 지속할 경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광주시에 전시관 재건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문화전당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함으로써 세계적 미술 행사로 한층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오늘 美 대통령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정오 워싱턴DC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제45대 대통령에 공식으로 취임한다. <관련기사 2면>

이후 곧바로 취임 연설을 통해 집권 1년차의 청사진을 공개한다. 취임사에는 트럼프 정부의 향후 4년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과제들이 담길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아웃사이드’ 출신 대통령에게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비전을 담아 직접 취임식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임사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국정운영 모토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별 실행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 중 하나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북구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중단 ▶6면

신팔도유람-광주 3대 야시장 ▶18면

정현, 호주오픈 아쉬운 탈락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특검 “다른 기업들 수사 정상 진행”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면밀히 검토해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에 암초를 만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

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가 언급됐는데, 뇌물죄라는 프레임이 계속 갖고 갈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대기업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1위 기업’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해 청구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 이후 수사 대상 기업으로는 ‘총수 사면’ 현안이 있었던 SK와 CJ,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이 있었던 롯데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